

高麗時代와 宋代의 冠服 比較研究

— 公 · 常服을 중심으로 —

暎園專門大學校 衣裳學科

副教授 徐玉卿

目 次

국문개요

I. 序 論

II. 歷史的 背景

1. 高麗時代

2. 宋代

III. 高麗時代의 冠服

1. 高麗 前期의 冠服

2. 高麗 後期의 冠服

IV. 宋代의 冠服

V. 高麗와 宋 冠服의 比較分析

VI. 結 論

참고문헌

ABSTRACT

國文概要

본 論文은 高麗時代의 冠服制度 中에서 公服과 常服을 中心으로 하여 研究하였다. 高麗時代에는 歷史的 遺物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現伝하는 多數의 高麗佛畫에 依하여 高麗服飾을 파악할 수 있으며, 高麗圖經이나 高麗史 輿服志 等の 文獻資料를 가지고 高麗의 冠服制度를 究明할 수 있었다. 또한 高麗는 周邊國家와 끊임없는 交流關係를 가지고 發展하여 왔으므로 宋代와 比較·分析하였다.

高麗에서는 紫·丹·緋·綠의 制度가 960~1123년까지 계속되었고, 宋代에는 紫·朱·綠·靑으로 四色 區分은 同一하나 高麗는 靑色을 着用하지 않아 差를 나타내고 있다. 毅宗朝의 紫·緋·綠·靑의 四色 公服制度는 宋의 元禮 元年(1078年)의 紫·緋·綠·靑의 公服制度와 同一함을 알 수 있고, 魚袋를 찬 것도 宋制의 影響을 받은 것이다. 恭愍王代에는 幘頭公服대신에 靑笠과 黑衣를 着用하고 頂子를 달아 等威를 區分하였다.

高麗 禑王 13年(1387年) 百官 冠服은 品帶에 差異를 두었으나 紗帽, 團領으로 制定하였다.

I. 序 論

冠服은 時代的 特性을 代辯하는 服飾의 代表的 分野라 할 수 있으므로 冠服을 통하여 그 時代의 政治的 特性·支配的 思想·宗教 및 價値觀 그리고 外來文化와의 必然的인 聯關關係를 살펴 볼 수 있다.

그러한 觀點에 따라 本 論文에서는 우리나라의 高麗時代를 택하여 그 時代의 百官 冠服 中 公·常服에 대하여 考察하였으며, 그 時代相과 그 時代 外來文化와의 關係가 어떻게 反映되었는가를 分析해 보고자 한다.

高麗의 主된 宗教는 佛教였으며, 高麗의 佛教는 個人的인 信仰이라기 보다는 國家的인 護國信仰을 爲한 것이었다. 즉, 外敵의 侵入을 防止하기 위하여 또는 國家安寧을 위하여 寺刹을 건립하고, 佛畫의 奉祀를 하였다. 高麗時代의 貴族社會에는

佛敎가 一般化되어 文人官僚나 儒學者라 하나라도 거의 모두 佛敎와 關係를 맺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하여도 過言이 아닐 정도였다.¹⁾ 高麗는 北方民族들과의 끊임없는 접촉으로 文化의 幅을 넓혔고, 특히 당시의 宋은 當代 文化의 後繼者로서 상당한 수준의 文化를 꽃피웠으며, 高麗와 密接한 影響關係를 가지고 있었다.

本 論文의 研究目的은 우리나라 高麗時代 冠服制度 中公·常服의 體系를 整理하고 高麗와 同時代인 宋의 冠服制度를 比較分析하며 高麗時代 冠服制度를 研究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本 研究範圍는 高麗時代를 主 對象範圍로 잡고 高麗時代의 冠服을 研究하기 위하여 高麗時代를 二期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高麗 前期는 918년부터 1259년까지의 時期로서 宋·契丹(遼) 時代에 해당하는 期間을 對象으로 하였고, 高麗 後期는 1260년에서 1391년까지의 時期로서 元·明 時代에 해당된다.

本 論文의 研究方法은 高麗時代에 관하여서는 高麗史 輿服志와 宣和奉仕高麗圖經을 中心으로 한 高麗文獻의 分析을 根據로 하였고, 圖證 資料로는 高麗時代의 肖像畫와 高麗佛畫 中華嚴經變相圖, 十王圖, 彌勒不生經變相圖 등을 中心으로 活用하여 研究하였다. 中國服飾 資料로는 宋史 輿服志, 宋會要, 二十五史를 中心으로 한 古文獻 解釋과 敦煌壁畫와 三才圖會 등의 圖證資料를 主로 하여 究明하였다. 연구에 이용된 敦煌 千佛洞 壁畫는 그 대부분이 唐末에서 宋初에 이르는 사이에 製作되었다고 학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다.²⁾

本 研究의 限界點은 첫째 高麗時代 服飾에 관련된 文獻資料와 研究가 他 時代에 比하여 不足하며 그로 인해 研究 過程에서 많은 難點을 가지고 있다. 둘째, 唯一하게 남아있는 高麗圖經의 圖版이 消失되었기에 高麗의 服飾이 殘存해 있지 않으며

實物研究을 並行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II. 歷史的 背景

1. 高麗時代

高麗(A.D 918~1392)는 新羅의인 要素와 新羅 末期에 形成된 土豪와의 聯立的인 社會體制를 바탕으로 建國되었으나 外國과의 關係에서 移民族과의 接觸을 頻頻하게 하여 文化의 幅을 넓혀왔다.

4代 光宗은 在位 11年 百官의 公服을 制定함으로써 豪族들의 無秩序한 行爲에 位階秩序를 잡고 王權의 尊嚴性을 認識시키기도 하였다.

高麗時代는 支配階層인 兩班의 發生·成長의 時代였으며 兩班의 經濟的 뒷받침으로서 5代 景宗 元年(976)에 官給田 制度가 成立되었고, 이 官給田의 創設은 四色段階를 媒介로 하였다.

仁宗 七年(1129年)에 이르기까지 高麗王의 冠服은 契丹, 遼, 宋, 金 등의 中國王朝에서 賜與되는 服을 基本으로 하였다.

顯宗의 南遷後 遼에 支配되었던 當時는 다섯번에 걸쳐 遼에서 國王의 冠服을 賜與받은 것이 「高麗史」 輿服志에 記錄되어 있다.³⁾

高麗 文宗 三十二年(1078)에는 宋의 神宗(在位 1067~1085)으로부터 冠服 및 服飾品 一式이 賜與되었으나 이는 宋의 建國에서 118年을 經過하고 있다. 「高麗史」 輿服志에는 宋으로부터의 冠服 賜與에 대하여 記錄되어 있다.⁴⁾

그러나, 宋으로부터 高麗에 대한 賜服은 이때 한번 뿐이고 그 後에는 遼에서 四回, 金에서 四回의 賜服을 받고 있다.

仁宗 十八年(1140)에는 高麗에서 金으로부터의 賜服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國王 및 百官의 祭服을 制定하고 있다.

1) 崔柄憲, 高麗中後期佛敎史論, p.191.

2) 原田淑人, 西域發見의 繪畫에서 보이는 服飾의 研究, 東洋文庫刊行, 大正十四年, p.9.

3) 高麗史 輿服志, 王冠服 靖宗 九年十一月.

4) 高麗史 輿服志, 三十二年六月.

仁宗時代의 服制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고, 高麗朝 獨自의 服制가 整備된 것은 毅宗 時代(1147~1170)에 들어온 다음이었다. 그러나 이미 華北一帶는 金이 支配하게 되어, 高麗獨自의 服制가 있어도 金朝로부터 冠服의 賜與는 그 후로 이어졌다.⁵⁾

高麗의 對 契丹 및 遼, 金과의 관계로 해서 服飾도 그 영향을 받았으나 그들 자체가 遼·金의 固有服과 漢服의 二重構造 속에 있었으므로 貴族들은 中國 古來의 服飾을 襲用하였다.

「高麗史」元宗世家에는 元宗 十三年(1272) 三月, 世子 謹(後의 忠烈王)가 元에서 歸還할 때, 辮髮胡服의 모습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高麗官僚의 一部는 辮髮胡服의 推進을 꾀하는 一派와 固有의 風俗을 지키려는 一派의 對立이 있었다. 高麗와 元朝와의 關係가 密接했었기 때문에 元으로부터의 賜服도 때때로 있었다.

恭愍王 五年에는 開剃辮髮을 바꾸어 元의 年號 至元을 쓰는 것을 停止했다.

恭愍王 十六年에는 敎書를 내려 正式으로 黑笠頂子의 制를 官服에 채택했다. 「高麗史」辛禡列傳에 依하면, 辛禡 12年(1386) 2月에는 政堂文學 鄭夢周를 明都에 派遣하여, 王의 便服 및 群臣의 朝服·便服의 賜與를 바라고 있다.

高麗時代의 服飾은 우리 古來의 服飾 위에 唐制·宋制·中國化된 契丹制·元制 등 各 服飾의 交錯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翌十三年 長壽가 明都에 가 그 歸途에는 明帝가 준 紗帽, 圓領의 冠服을 입고 있었다. 이것을 본 高麗人은 처음으로 明의 새로운 冠服에 接하고 그해 六月에는 全面的으로 冠服의 改革을 행하였다.⁶⁾

2. 宋 代

960年 趙匡胤이 皇帝位에 오르고 宋朝를 建立하

여, 中原과 南방의 통일을 이룩하였는데, 汴京에 도읍을 정하고 北宋으로 일컬었다. 欽宗의 아우 康王 鎬는 남쪽으로 장강을 넘어 臨安에서 稱帝 등극하였는데 이를 南宋이라 하였다.

唐의 찬란한 文化가 終熄을 고한 이후 中國은 다시 혼란을 거듭하다가 宋의 出現으로 統一國家가 再現되었으니 唐代文化의 후계자로서의 宋代文化가 찬란하게 일어났다.

당시 中國 四北地域에는 契丹族이 遼를, 1127년에는 東北地域의 여진족이 金을 건립하였기에 宋代는 政治 정세가 唐代와 같이 견고하고 安定되지 못하여 對外政治面에서 굴욕적인 타협을 하기도 하였다.

五代는 短命王朝가 亂立했으므로 冠服制度도 정립되지 않았고 唐代의 服制가 그대로 행해졌으며, 宋代에 들어와서는 잠시 唐制에 의하였으나 南宋時代로 들어오면 服制는 가끔 變化하였던 것으로 되어있다.

宋의 建國初에는 衣服制度를 唐制로 襲用하였고, 健隆 2年(961年)에 太祖는 崇義의 秦濟에 따라 「三禮圖」를 制定하여 禮服制度를 傳統에 입각하여 재정비하였다. 이를 始初로 前後 27次에 걸쳐 服制改定를 하였으나 百官의 公服은 唐에서 定制한 北方民族의 額領袍衫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祭·朝服을 제외하고는 上下를 막론하고 通用되었으며 단지 服色으로 等位를 가렸다.

III. 高麗時代의 冠服

1. 高麗 前期의 冠服

高麗의 太祖는 新羅의 制度를 繼承하였고⁷⁾ 主된 服制改革은 光宗 11年(960), 仁宗 18年(1140), 忠烈王 4年(1278), 恭愍王 19年(1370)에 4回 行해졌다. 本 論文에서는 高麗 前記의 服飾을 光宗 11

5)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pp.358~360.

6) 金 東旭, 李朝前期服飾研究, 韓國研究院, 1963, p.87.

7) 高麗史 百官志, 序文.

年 服制改革과 高麗圖經의 公·常服을 中心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高麗에서 正式記錄으로 公服을 採用한 것은 後周가 光宗 7年(956)에 薛文遇를 보내어 王에게 冊封을 바치자 「百官의 衣服을 中國의 制度에 따르게 하였다」⁸⁾라고 한데서 비롯된다. 後周時代의 冠服도 그 大綱은 唐制를 踏襲하고 있었으므로, 이 무렵의 高麗冠服도 新羅의 舊制가 繼承되어 있었던 듯하다.

또 「新五代史」四弟附錄 第三에도 「周世宗時 遣尙書水部員外郎韓彥卿以 帛數千匹 市銅於 高麗以鑄錢」이라고 되어 있어 高麗와 五代 後周間의 國交는 꽤 緊密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⁹⁾

光宗 11年(960)에 百官의 公服을 정하니, 元尹 以上은 紫衫, 中壇卿 以上은 丹衫, 都航卿 以上은 緋衫, 小主簿 以上은 綠衫이었다.¹⁰⁾

光宗朝 公服制의 性格은 다음과 같고 이는 景宗朝 公服制로 이어진다. “元尹은 官等(品)이나 都航卿, 中壇卿, 小主簿는 官職으로 이해된다. 國初의 官階는 官職과는 無關하게 國家 統治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한 方便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며, 中央政治와 行政實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人物이라도 그들의 勢力差異나 高麗朝에 대한 협조여하에 따라서는 다른 등급의 官階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高位官界의 인물대상은 大豪族, 功臣들이었고, 官職의 高低가 반드시 官階의 上下와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景宗元年(976年) 11月 관리들의 생계보상책으로 마련된 始定田 柴料에서도 보인다. 紫衫은 文, 雜, 武의 어느 班에도 屬하지 않았으나 田, 紫의 支給額도 다르게 處를 能가하고...”¹¹⁾

圖1은 高麗時代 963年에서 1021年에 생존했던



〈圖 1〉 高麗 姜民瞻像
中央國立博物館, 韓國肖像畫

姜民瞻像으로 平脚幘頭, 大袖圍領袍, 笏 等 初期公服의 形態를 볼 수 있다.

高麗 公服에 關한 記錄은 王世子 冠禮服에 나타나 있는데, 高麗에서 王世子 冠禮가 처음으로 실시된 時期는 光宗 16年 2月(964年)이다.¹²⁾ 王世子 冠禮는 高麗 全時代를 통해서 실시되었으며, 服飾 자체에 대한 具體的인 記錄은 없고 다만 冠禮服飾의 名稱만이 간단히 명시되어 있다.¹³⁾

高麗 光宗朝의 四色公服制度에서 元尹 이상이 紫衫을 입었고 왕의 公服도 紫羅公服이었다. 그러므로 再加服은 王이나 文武官의 公服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 窄袖衣라 한 것으로 보아 公服의 소매폭을 좁게 하여 입었던 것 같다. 한편 三加에서는 公服을 그대로 착용한다고 했으니 이때의 소매 형태는 袖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再加와 三加的 服은 다 같이 公服을 착용하는데 다만 소매의 형태를 각각 窄袖와 袖로 구별했다고 여겨진다.

三加的 冠帽인 幘頭는 高麗時代에는 王 이하 文武官에 이르기까지 公服에 착용한 것인데 그 형태는 中國의 宋制와 비슷했을 것으로 보아 脚이 아주 길고 끝이 약간 올라간 듯한 平脚이었을 것이다.¹⁴⁾

8) 高麗史, 志, 卷二十六, 輿服一, 「仍令百官衣冠從華制」.

9) 杉本正年, 前掲書, p.356.

10) 高麗史 志 卷二十六 輿服一, 公服.

11) 李基白編 「高麗光宗研究」, “金塢 崔承老의 上書文에 보이는 光宗代의 厚生과 景宗 元年 田柴料.” pp.66~69.

12) 高麗史, 世家 卷第二, 光宗 十六年 二月.

13) 高麗史, 志 卷第二十 禮入.

14) 李正王, 冠禮服飾研究,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6, p.78.



〈圖 2〉
高麗 崔惟善像
名人肖像大鑑

圖2는 高麗時代 1041年 以後에 生存했던 崔惟善像으로 平脚幘頭에 大袖圓領袍, 笏을 든 公服의 形態와 袍의 領과 袖口 끝에 襪을 던 것을 볼 수 있다.

高麗 前期의 中國諸王朝로부터의 賜服 및 獨立的인 冠服制度의 制定을 年代的으로 整理하자면 다음의 〈表 1〉와 같다.

高麗 前期에 해당되는 1098년에 製作된 大方廣佛 華嚴經 變相圖의 版畫에 나타난 冠服으로 미루어 初期의 冠服制를 알 수 있으며 圖3은 華嚴經 變相圖 第二十卷의 그림으로 冠服은 平脚幘頭에 폭이 넓은 袍이다.

〈表 1〉 高麗 前期의 賜服과 服制

年代	高麗	遼·宋·金	賜服	服制
918	太祖 元		王服 黃袍 (國初)	高麗建國 新羅의 服制를 踏襲
956	光宗 7			百官華制에 따름
960	光宗 11			百官公服 紫·丹·緋·綠으로 함
963	光宗 14	宋太祖 4		宋年號使用
976	景宗 元	宋太宗 元		田柴科으로 定함
982	成宗 元	宋太宗 7		田丘, 籍田禮
983	成宗 2	宋太宗 8		崔承老上書
1043	靖宗 9	遼興宗 12	宋·契丹에서 冠服 下賜	
1049	文宗 3	遼興宗 18	契丹에서 冠服 下賜	
1055	文宗 9	遼興宗 24	契丹에서 冠服·圭 下賜	
1057	文宗 11	遼道宗 3	契丹에서 冠服 下賜	
1065	文宗 19	遼道宗 11	契丹에서 九旒冠·九章服 玉圭 下賜	
1072	文宗 26	宋神宗 5	宋에서 御衣·黃衫便服·腰帶·勒帛 下賜	
1078	文宗 32	宋神宗 11	宋에서 王의 公服·汗衫·三袍肚·勒帛·袴腰帶·靴帛 下賜	
1080	文宗 34	宋神宗 13	宋에서 御衣·腰帶·幘頭紗·帽子紗 下賜	
1085	宣宗 2	遼道宗 31	遼에서 冠冕·衣帶·圭 下賜	
1097	肅宗 2	遼道宗 46	遼에서 王世子의 衣帶 下賜	
1123	仁宗 元	宋徽宗 23		이후로 高麗服飾은 宋制를 따름
1140	仁宗 18	南宋高宗 1		禘禮服裝王服九旒冕七章
1143	仁宗 20	金熙宗 9		
1172	明宗 2	金世宗 12	金에서 九旒冠·九章服·玉圭 下賜	
1199	神宗 2	金章宗 4	金에서 冠服 下賜	
1212	康宗 元	金紹王 4	金에서 冠服 下賜	



〈圖 3〉高麗 大方廣佛華嚴經 變相圖 第二十卷



〈圖 4〉高麗 大方廣佛華嚴經 變相圖 第六十卷

圖4는 變相圖 第六十卷으로 冠服은 平脚幘頭에 大袖盤領袍의 形態를 보이고 있다.

17代 仁宗 元年은 宋朝 徽宗 皇帝의 宣和 五年 (1123)에 해당되는데 이 해 宋의 使臣으로 왔던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이 오늘에 전해지고 있는데, 高麗圖經에 보이고 있는 公服制는 다음의 <表 2>와 같다.

이에서 보던 文官들의 公服은 一品에서 九品에 이르기까지 모두 幘頭를 썼으며, 袍는 職品에 따라서 紫文羅袍·緋文羅袍·綠衣를 입었고, 帶도 職品에 따라 玉·金·角·鞞의 장식 구별이 있었으며, 이에 金魚袋 또는 銀魚袋를 차고 있었다.¹⁵⁾

高麗 前期를 통하여 服制가 가장 整備된 것은 18代 毅宗時代(1147~1170年)였다. 百官의 公服에 대해서는 光宗 十一年(1158年)에 四色의 衫袍를 公服으로 制定하였으나, 毅宗年代에 整備되고 있다.

高麗圖經에 나타난 公服制의 裏證이 되는 것이

〈表 2〉高麗圖經에 나타난 公服制度

	冠帽	袍	帶	備考	品 官
令官服	紗製幘頭	紫紋羅袍	玉帶 佩金魚		太史·大尉·中書令·尙書令(文官四品以上毅宗朝祥定)
國相服	紗製幘頭	紫紋羅袍	毳文金帶 佩金魚	從 1品 正 3品	侍中, 大尉, 司徒, 中書門下侍郎平章事, 參知政事, 左右僕射, 政堂文學, 判尙書, 吏部判事, 樞密使, 副司知院奏事等官
近侍服	幘頭	紫紋羅袍	御仙金帶 佩金魚	3, 4品	左右尙侍, 御史大夫, 左右丞, 六尙書, 翰林學士, 承旨學士, 祗待國朝使, 命接伴館伴官
從官服	幘頭	紫紋羅袍	御仙金帶	從 3, 4品	御史中丞, 諫官, 給事侍郎, 州牧留守使副, 關門執贊, 六尙直官, 都知兵馬, 四部護使, 王의 世子, 王의 兄弟
卿監服	幘頭	紫紋羅袍 (鄭刻) 緋紋羅袍	紅鞞犀帶 佩銀魚	從 3, 4品	六寺卿職, 省部丞郎, 國守備官, 秘書典職
朝官服	幘頭	緋紋羅袍	黑鞞犀帶 佩銀魚	5, 6品	司業博士, 史館校書, 太醫·司天兩省錄事以上
庶官服	幘頭	綠衣	烏鞞	7, 8, 9品	省進士入官, 省曹補吏, 州縣令尉, 主簿, 司宰

15)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86, p.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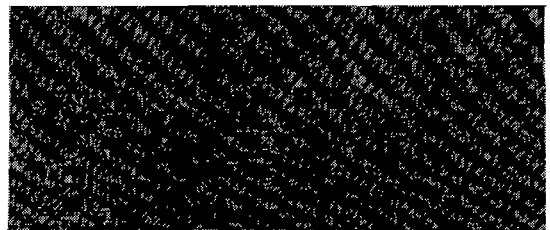
〈表 3〉 毅宗朝 公服 制度

品 官	服	魚袋	帶	笏
文官四品以上	紫	金魚	紅鞞	
常參六品以上	緋	銀魚	紅鞞	服紫緋者以象
九品以上	綠			服綠者以木
閣門班武臣	紫	不佩魚		其制上挫下方
內侍茶房等官除本服外	紫	不佩魚		
四京留守視尙書 副留守視三品 視三品以下各依本品				
東南京副留大都護牧副使以上	紫	金魚		
兩府及承制文武三品以上 四品知制誥翰林東宮 侍講				
侍講學士 賓文閣直學士 侍制 正四品 知閣門	皂		紅鞞	
內侍行頭員茶房侍郎以上				
公侯伯		不佩魚	通犀金, 玉班犀	
宰臣嘔密			金玉班犀, 方圍	
文官入座左右常侍御史 大夫 翰林學士			毳 路	
承旨 侍臣 三品以上 武官 士將軍以上			金, 班犀	
文武三品及侍臣給舍中丞以上			班犀金, 塗銀	
文武四品以下 常參官			金塗銀犀	
閣門通事舍以下祗候以上			金塗銀	
參外官不許着犀				

毅宗朝의 公服制度인데, 이를 整理해 보면 〈表 3〉과 같다.

毅宗朝의 公服制度의 服色은 紫·緋·綠 三色인데 白색이 있으니 四色이 되는 셈이다. 笏은 緋以上이 象이고 綠은 木이다. 그리고 笏은 宋制를 따랐으며, 尺 二寸이나 되는 긴 것이다. 帽은 물론 幞頭로서 角이 길고 끝이 약간 위로 올라간 것이다. 毅宗朝 公服의 特色은 魚袋를 찬 것이니 이는 바로 宋制를 따른 것이다. 魚袋는 그 制가 唐에서 시작한 符契로서 처음에는 이를 魚符라고 하여 左一·右一 두개로 쪼개어, 左者는 官內에 드리고, 右者는 몸에 지니고 있어 여기에 官姓名을 刻하여 出入에 合하여 보는 것으로 袋에 넣었으므로 이를 魚袋이라 하였고, 宋制는 金銀으로 裝飾하여 魚形을 만들고 公服에 帶를 매게 되어 있어 뒤에 드리게 된 것이다.¹⁶⁾

高麗時代 1246년에 製作된 佛說預修 十王生七經 變相圖, 一名 前十王圖라 하는데 이 그림에 公服의 形態가 나타나 있다. 그림의 王 右側 옆에 있는 者의 服을 보면 脚이 수평보다 약간 아래로 향한 듯한 幞頭를 쓰고 大袖의 團領袍를 입었는데, 袍의 전체길이의 1/5 정도 되는 길이의 襟이 옆으로 가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笏을 들고 있다. (圖5)



〈圖 5〉 高麗 後十王圖, 海印寺 木版本

16) 金東旭, 前掲書, p.36.

2. 高麗 後期の 冠服

高麗 23代 高宗代에 蒙古의 侵入으로 蒙古風에 다르게 되었고, 忠烈王 20年 11月 庚戌에 耽羅王 子에게는 高麗前期로부터 습용해 오던 우리의 公服을 수여하였고, 한편 乙卯에는 達魯花赤에게 蒙古계통의 織金衣를 賜與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元 附庸時代의 高麗도 元 固有服色 一色으로 變貌된 것이 아니라 國俗과 宋制에서 물려받은 元制의 二重의인 構造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더우기 公服系統은 宋制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을 그대로 使用하고 있었던 것 같다.¹⁷⁾

元 자신이 中國에 同化되어 中國 朝廷에서 물려 받은 冠服을 使用하였으며, 高麗에서도 冠服에서 單은 그대로 中國制度를 답습하고 있다. 한때, 일부의 蒙古風俗과 服飾이 高麗에서 流行을 보게 되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風俗에 많은 變容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元이 高麗에 대하여 國婚關係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同化政策을 써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質의으로 따져보면 그다지 많은 變容을 가져왔다고 볼 수 없으니, 큰 變容이라 할 수 있는 頭髮의 鬃剃도 그 실은 上流階級 및 官員들에 관한 것이었다.¹⁸⁾

元帝國이 衰微하여지자 高麗는 서서히 元의 羈絆에서 벗어나려고 움직이고 있었으며, 恭愍王 六年 閏九月에 天少監 干必興이 上書하여 服色을 五行에 맞도록 改革할 것을 稟하였다. 즉 玉龍記에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白頭에서 시작하여 智異에 그치니 그 勢는 水根 本幹之地라 黑으로써 父母를 삼고 靑으로써 身(身)을 삼고 있다. 만약 風俗이 土에 順하면 昌하고 土에 逆하면 災殃을 받는다. 風俗이라 하는 것은 君臣百姓 衣服冠蓋를 말함이다. 今後 文武百官은 黑衣 靑笠으로 하고 僧服은 黑巾大冠으로 하고 女服은 黑羅로 하여 土風에 順應하도록 하자고 말하여 恭愍王이 이에 따랐다고

한다.¹⁹⁾ 그러나, 이는 表面上의 움직임이고, 그 根本的인 意圖는 背元向明의 새로운 움직임 속에서 自主性을 摸索해보자는 데에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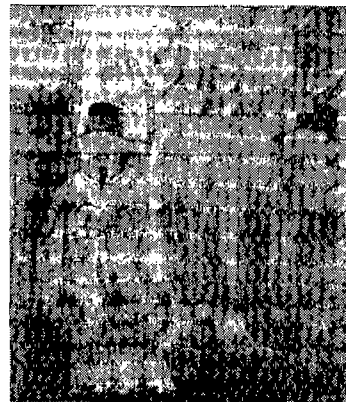
恭愍王 十六年の 制度는 黑笠에 다만 頂子만 바꿈으로서 官의 等威를 가른 것을 알 수 있다.²⁰⁾

圖6은 海인사 소장의 佛經變相圖로서 脚이 아래로 향한 幘頭에 길이가 긴 大袖團領袍를 입고 笏을 들고 있는 高麗時代의 公服 形態가 나타나 있다.



〈圖 6〉 佛經 變相圖

高麗 公服着用圖 海印寺 所藏本



〈圖 7〉

高麗 地藏菩薩 地藏十王圖

圖7은 高麗地藏菩薩 地藏十王圖의 部分圖인데, 幘頭에 大袖의 폭이 넓은 團領袍를 입고 帶·笏·靴을 갖추었는데 전체 옷길이의 1/5가량 되는 길이의 欄을 据端에 加했다.

辛禡 十二年(1385年) 二月에 당시 正當文學이었던 鄭夢淵를 明京에 보내어 王의 便服 및 君臣의 朝服과 便服을 請하였다.

32代 禡王 十三年 六月에 「始革胡服 依大明制」라 하여 아직 宋制를 襲用하고 있던 明制에 依하

17) 金東旭, 前掲書, p.227.

18) 柳喜卿, 前掲書, p.131.

19) 高麗史 志 卷第二十六 與服, 恭愍王六年閏九月.

20) 高麗史 志第二十六 與服, 恭愍王 十六年七月教口.

여 冠服制度를 단행한 바 있었는데, 一品에서 九品에 이르기까지 모두 紗帽·圓領을 착용하였으며, 그 品에 따라 帶에 差를 두었다.²¹⁾

辛禡 十三年 六月에 明의 制度에 따라 百官의 冠服을 定하고 官員이 이를 입으니 明使 徐質이 보고 高麗가 다시 中國의 冠帶를 하게 되었다고 讚嘆하게 된 것이다.²²⁾ 辛禡 十三年 六月, 高麗後期로서는 가장 整備된 文武百官의 公服이 制定되었는데, 이 制는 明의 洪武 三年(1372)에 制定된 常服制에 의거하고 있다.

IV. 宋代의 冠服

宋은 建國初에는 官·軍의 衣冠制度 일체를 唐制로 襲承하였으나 建隆 二年(961年) 太祖는 崇義의 奏請에 따라 三禮圖를 制定하여 禮服制度를 傳統에 입각하여 재정비하였다. 이를 始初로 前後 27次에 걸쳐 服制改定을 하였으나 百官의 公服은 唐에서 定制한 北方民族의 盤領袍衫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祭·朝服을 제외하고는 上下를 막론하고 通用되었으며 단지 服色으로 等位를 가렸다.²³⁾

宋史 輿服志에 의하면 北宋時代의 主된 服制改革은 仁宗의 景祐 二年(1035), 神宗의 元豐 四年(1081), 徽宗의 大觀 四年(1110)과 正和年間(1113~1125)에 4번 행하여졌으나 首都가 南으로 옮겨졌던 南宋은 高宗의 紹興 四年(1134)에 1번 행해졌을 뿐이다.²⁴⁾

宋史 輿服志에 의하면 公服으로 具服일 때는 朝服이고, 從省服은 公服으로 常服이라고도 하며 從省일 경우에 公服이라 한다. 宋나라는 唐의 制度를 채택하여 三品以上은 紫色(紫色은 油紫와 北紫 등 2가지가 있는데 油紫가 色이 짙어 검은색과 가깝다. 仁宗 以後로 짙은 色을 貴하다고 여겼다는

것은 바로 油紫色을 말하는 것이다. 南쪽에서 染工들이 가끔 山樊葉으로 검은 紫色을 染色했는데 바로 이 色이었다. 北紫는 극히 밝은 色이며 降色과 가까운 진빨간색이다. 中興以後 皇帝가 赤紫色이라고도 불리운 北紫色을 선호하여 신하들이 감히 이 色의 衫袍를 만들어 입지 못했다고 한다), 五品以上은 朱色, 七品以上은 綠色, 九品以上은 靑色이며 그 制度는 曲領大袖이고 아래는 橫襪이 加해져 있으며 革帶를 하고 幘頭를 쓰며 烏皮靴를 신는데 王公에서부터 士庶에 이르기까지 通服으로 삼았다고 한다.²⁵⁾

宇文護가 袍에 襪을 加하기 시작하여 드디어는 後의 制度가 되었고 오늘날(宋朝)의 公服이 되었다.²⁶⁾ 五代·宋의 기록으로는 公服을 常服이라 하였지만 이는 官吏의 視務服적인 의미가 많았다.²⁷⁾

幘頭는 公服 및 常服 차림에 쓰는 모자이며 접히는 데가 있고 위로 굽어지기 때문에 折上巾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天子, 王公을 비롯하여 百官까지 一般 朝會나 公式 모임에 公服과 幘頭를 着用했을 뿐만 아니라 平常時에도 착용했다. 宋代의 幘頭는 直脚이 대부분이다. 初期에 兩脚이 左右로 平直展開된 것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

圖8은 南宋代 1161년부터 1237년까지 生存했던



〈圖 8〉
宋蔡秀通象
(1161~1237)
南宋 三才圖會

21) 高麗史 志 卷第二六 輿服.

22) 高麗史 卷一三六 二五.

23) 任明美, 中國의 古代服飾研究(1), 耕春社, 1988, p.89.

24) 杉本正年 東洋服裝史, 東京, 衣生活研究會, 1978, p.35.

25) 宋史 卷一百五十一 志一百六 輿服五.

26) 事物紀原, 卷三, 公服.

27) 曹五順, 圓領에 關한 研究, 中央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1986. p.140.

蔡秀通象으로 幘頭, 大袖 圓領袍, 笏을 든 公服의 形態를 볼 수 있다.

圖9는 北宋時代의 版畫인데, 약간 아래로 향한 듯한 脚의 幘頭를 쓰고 발목 정도 길이의 窄袖 圓領袍에 帶를 띠고 있다. 半脚 幘頭에 폭이 넓고 길이가 긴 圓領袍를 입고 帶를 두른 宋代 公服으로 帶에 魚帶를 찬 모습이 보인다.(圖10)



〈圖 9〉北宋本 御製秘藏詮 版畫
第十三卷 第二圖, 高麗華嚴版畫의 世界



〈圖 10〉
宋 曹延綠供養像 榆林窟
第五十窟, 古宮文物 p.21

神宗 元豐 元年(1078)에 있었던 服色과 笏에 대한 改定을 보면 青色禁止와 四品까지는 紫色, 六品까지는 緋色에 象笏을 들고 佩魚했으며 九品以上은 綠色에 木笏을 든다. 武臣과 內侍는 다 紫色을 입고 佩魚하지 않으며 象笏을 든다. 假版官 및 벼슬아치와 같이 技術있는 사람과 人品官은 綠色을 입으며 品職者는 服色이 변하지 않는다. 無職者나

28) 宋史, 第3冊 宋史志 第106, 輿服志.

29) 宋史 卷百五十三 輿服志 百六 輿服五.

服色이 변한 者는 年齡의 차에 따라 또는 特恩을 받아 服色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²⁸⁾

圖11은 宋代 敦煌壁畫의 부분도인데, 脚이 아래로 늘어진 幘頭와 길이가 긴 窄袖袍를 입고 帶를 띤 官服의 모습이 보인다.



〈圖 11〉
宋長者子流水品
之一五五窟
中國壁畫全集, 敦煌



〈圖 12〉
宋末生怨局部 榆林
三八窟

宋代 敦煌壁畫 榆林 三八窟의 그림인데 아래쪽 가운데 官員이 幘頭를 쓰고 길이가 긴 窄袖圓領袍를 입고 笏을 들고 있는 公服의 모습이다.(圖12)

帶를 살펴보면 “(前略) 宋制는 상세하여 玉, 金, 銀, 犀, 銅, 角, 石, 黑玉類가 있고 等差가 있었다. 公服에는 玉帶를 금했고 非品官은 犀帶를 동용하되 特旨를 받지 않는 자는 금했다. 庶民과 郡縣吏 및 技術等人은 銅, 鐵, 角, 石, 黑玉類를 사용토록 했다.”²⁹⁾ 太平興國 七年(982年)에 “三品以上 玉帶,

四品以上 金帶, 五·六品이 銀鈔鍍金, 七品以上 未參官이나 內職武官은 銀鈔, 八·九品以上은 黑銀, 나머지 官服은 黑銀方圓 犀角帶를 着用했다.

宋은 前 時代의 制度에 따라 朝會에 靴를 着用했다. 靴制는 黑色皮革으로 목을 길게 만들었으며 속에 氈으로 대었다. 높이 八寸이고 文·武官들이 모두 착용했다. 각 官職 服色에 따라 綠色服에는 綠色, 緋色服에는 緋色, 紫色服에는 紫色의 테를 둘러 裝飾했다.

魚袋는 唐制로 符契를 가리키는 것인데 처음에는 魚符라 하였으며 左·右 각각 하나씩 둘로 갈라서 左側은 朝廷에 右側은 本인이 갖고 있다가 (官姓名새겨져 있음) 朝廷에 出入할 때 對照하는 것이었고 주머니에 넣었으므로 魚袋라 하였다. 이것을 宋代에는 魚形으로 만들어 金·銀으로 裝飾을 하여 公服의 帶에 매어 뒤에 늘어뜨려서 貴賤을 나타낸 것으로 唐制가 復活된 것은 아니었다. 服色이 紫色이나 緋色인 者들에게 魚袋를 着用하게 하였는데, 紫衣는 金魚, 緋衣는 銀魚를 사용하였다.³⁰⁾

다음은 宋代의 官服으로 아래로 향한 듯한 脚의 幘頭를 쓰고 圓領袍를 입고 帶를 띠었는데 帶에 魚袋를 차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圖13)

圖14는 宋代의 그림으로, 가운데 있는 者들의 服을 보면 脚이 아래로 처져있는 幘頭를 쓰고 圓領袍를 입고 帶를 매고 있다.

宋나라때 金紫나 銀緋를 下賜받는 것이 무척 榮光스러운 일이었다. 金紫란 것은 金으로 된 魚袋



〈圖 14〉宋韓熙載宴會

〈圖 13〉宋歸義軍節度使曹元忠像
古宮文物 p.21

와 紫色의 公服 차림이며 銀緋는 銀魚袋와 緋色 公服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외에 借紫와 借緋란 것이 있는데, 즉 官品에 따른 服色외에 節鑰이나 奉使의 官職으로 파견되는 경우에 紫色 公服을 빌려 쓸 수 있다. 또 知防禦, 團練, 刺史등 원래 緋色을 着用하는 사람들이 紫色을 빌려 쓸 수 있고, 원래 綠色을 着用하는 자는 緋色을 빌려 쓸 수 있다.³¹⁾

宋代의 官服色은 <表 4>와 같다.

V. 高麗와 宋 冠服의 比較分析

高麗는 國初에 新羅의 舊制와 五代·宋制, 後期에는 元制와 明制의 影響을 받았으나, 唐制의 影響을 입었던 新羅制를 根幹으로 하였다. 이런 가

〈表 4〉宋代의 官服色

時代	時 期	服 色									備 考	出 處
		一 品	二 品	三 品	四 品	五 品	六 品	七 品	八 品	九 品		
宋	906~1125	紫			朱		綠		青		公服(=常服) 王公에서 一命之士까지	宋史 卷153, 志第106, 輿服5
	元豐 元年 (1078)	紫				緋		綠				

30) 宋史 卷153, 輿服志.

31)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丹青圖書有限公司. p.272.

운데서 당시 宋이 高麗의 冠服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다. 이러한 中朝의 冠服 習用은 賜與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契丹이나 遼로부터의 賜服은 있었다해도 그것은 國王 및 王妃나 王世子에 대한 祭服이었으므로 國王의 常服이나 一般官吏의 常服은 毅宗時代의 冠服制가 確立될 때까지는 光宗 十一年(960)의 制가 그대로 행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高麗圖經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毅宗 以前의 官服은 宋制에 의한 것이었다.³²⁾

宋史 輿服志에 적힌 宋의 服制와 比較하면 細部에서는 꽤 差가 보인다. 高麗에서는 紫·丹·緋·綠의 制度가 960~1123년까지 계속되었고(1123년에 衫衣가 첨가됨) 宋代에서는 紫·朱·綠·靑으로 曲領大袖와 窄袍가 있었다. 四色으로 區分한 點은 同一하나 高麗는 靑色을 着用하지 않아 宋制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三國史記는 仁宗 二十三年(1145年)에 金富軾이 지었으나, 宋人이 金富軾 등의 服裝을 보고, 자기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高麗의

冠服이 華制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³³⁾

18代 毅宗朝 崔允儀가 제정한 詳定古今禮에 따라 정한 公服制度는 紫·緋·綠·靑의 四色임을 알 수 있다. 또 이때 公服을 王太子의 三加服으로 정했는데, 初加는 紫賺通頂, 梘黃衣이고 再加는 帽子, 紫羅窄袖衣이며 三加는 幘頭 公服이라 하였으며, 四品 以上이 紫, 六品 以上이 緋, 九品 以上이 綠인³⁴⁾ 宋의 神宗 元豐 元年(1078年)의 服色制度와 同一함을 알 수 있다.

毅宗朝 公服의 特色은 魚袋를 찬 것이며, 이는 바로 宋制를 따른 것이다. 이 制度는 高麗圖經의 官服制度를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兩制의 내용도 비슷하다. 等位를 가르는 것은 依次, 服色, 帶, 魚袋, 笏이다. 魚袋는 中國에서의 金紫, 銀緋의 制度와 同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詳定古今禮 以後의 公服制度는 거의 恭愍王代까지 큰 變化는 없었다고 보아지며, 이것은 當時 中國의 制度와 類似한 形態로 發達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高麗와 宋의 冠服을 時代別로 比較하자면 <表 5>와 같다.

<表 5> 高麗·宋 冠服의 年代別 比較

	高 麗		宋
960	紫·丹·綠으로 百官公服 制定	960~	諸臣公服은 常服
982	百僚에게 公, 穿鞞을 着用	1279	紫·朱·綠·靑으로 區別
1078	宋의 神宗이 紫花 夾服을 賜함		曲領大袖, 橫襖
1123	令官은 紫文羅袍, 紗制幘頭, 玉帶, 金魚를 함 國相은 紫文羅袍, 毳文金帶, 金魚袋를 함 近侍는 紫文羅袍, 毳文金帶, 金魚袋를 함 從官은 紫文羅袍, 御仙金袋를 함 鄉監은 緋文羅袍, 紅鞞帶, 銀魚袋를 함 朝官은 緋文羅袍, 黑鞞角帶, 銀魚袋를 함	1006	公服에 窄袍가 있었음
1146~	文官 四品 以上은 紫衫 紅鞞 金魚이고, 常參	1125~	金人의 常服은 盤領衣, 烏皮靴
1170	六品 以上은 緋衫 紅鞞, 銀魚이고, 九品 以上 綠衫임	1289	吐魯을 함. 三品은 盤領, 縫腋 아래주름, 길이 정강이뼈까지 음.
1387	百官冠服은 一品에서 九品까지 紗帽, 團領으로 하고 帶에 差異를 둠 (새로이 中國衣冠着用했음)	1161~	文官 五品 以上은 紫, 六·七品은 緋, 八·九品은 綠이며, 五品 以上은 文樣이 있되 種類, 크기를 制限하였음
		1289	文資官 公服에 襪을 加함
		1175	百官公服은 展脚幘頭, 京偏帶, 大袖盤領.
		1206~	四品 以上 紫, 六·七品은 緋, 八·九品은 綠羅임.
		1368	四品 以上은 文樣이 있되 種類, 크기를 制限하였음

32)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中世編, p.364.

33) 杉本正年, 前掲書, p.360.

34) 宋史, 卷 153, 志 第106, 輿服5, 公服.

VI. 結 論

本論文은 高麗時代의 百冠 冠服 中公·常服을 制度的으로 整理하였으며, 同時代 宋代의 冠服制度와 比較·分析하였다. 本 研究는 高麗의 冠服制度를 高麗의 冠服制度를 高麗의 冠服制度를 고찰하기 위해 史料를 根據로 하여 年代順으로 究明하였고 佛畫와 圖證資料의 該當 年代와 史料의 記錄事實과 比較하면서 考察하였다.

高麗의 公服은 光宗十一年(960)이 되어 처음으로 制定되었는데, 이 해는 後周가 滅亡하고, 宋이 建國된 해이기도 하다. 이때의 公服은 高麗史 與 服志에서 볼 수 있듯이 紫·丹·緋·綠의 四色公服制인데, 이 公服制定은 宋의 建國과 關係가 없고, 唐制(開元令)에 準한 것이다.

高麗의 服色은 4代 光宗朝(960年)에 紫·丹·緋·綠의 四色公服制로 나타나며 高麗圖經(1123年)과 18代 毅宗朝(1158年)에 紫·緋·綠의 三色公服制가 記錄에 보이고 있다. 906년부터 1125년까지의 宋의 冠服色은 紫·朱·綠·靑의 四色公服制度이고 元豐 元年(1078年)에는 紫·緋·綠의 三色公服制度가 使用되었다.

한편 借紫, 借緋의 制度가 盛行하였는데 高麗에서는 1146~1170年사이에, 宋에서는 1034년에 이루어졌고, 高麗에서 紫·丹·緋·綠의 百官公服制度(960年 定)는 當時 宋의 紫·朱·綠·靑의 制度와 比較해볼 때 四色の 區分은 同一하나 高麗는 靑色을 使用하지 않아 宋制와 差를 알 수 있다.

高麗의 公服은 幘頭, 圓領袍, 帶, 魚袋, 笏, 靴로 構成된다고 보여지며, 宋史 與 服志에는 「公服從省 謂之常服」이라 하여 從省服일 때는 公服이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常服이라 하여 公服과 常服의 區別이 없었으며 官吏의 視務服으로 생각하였다.

高麗의 幘頭는 平脚이거나 脚이 약간 아래로 향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毅宗朝의 記錄에는 脚이 약간 위로 향한 것이 나타나있고, 高麗 前期 幘頭의 脚이 後期에 비해 옆으로 긴 것을 알 수 있으며, 高麗 後期에도 幘頭의 形態를 보이다가 末期에는 幘頭가 紗帽 形態로 바뀌고 있다. 宋의 幘頭

는 주로 平脚 頭이고 脚이 약간 위로 향하거나 약간 아래로 굽어진 形態로 나타난다.

高麗의 公·常服은 圓領袍인데, 初期 圓領袍에는 領과 袖口에 襪을 댄 것도 보이며 階級에 따라 袖幅의 差와 袍의 長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宋代의 圓領袍에는 袖幅과 袍의 長이에 따라 階級的 區別이 보이며 橫欄에 관한 記錄이 宋史 與 服志(註 26)와 事物紀原(註 27)에 나타나있다.

高麗와 宋의 帶는 職品에 따라 金, 角, 등 裝飾의 等差를 두었고 魚袋를 착용했는데 魚袋는 宋制의 影響을 받았으며 笏은 階級에 準한 服色에 따라 材料를 달리 하였다.

高麗 後期の 公服은 宋制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을 使用하다가, 高麗末 禡王 十三年에 明制에 따라 紗帽, 圓領을 받아들였다.

앞으로의 課題는 高麗時代의 服飾, 특히 冠服制度에 대한 多數의 深度깊은 研究가 많은 圖證資料를 바탕으로 하여 活潑히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參考文獻

- 徐璣, 高麗圖經, 亞細亞文化史, 1981.
- 鄭麟趾, 高麗史,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1961.
- 金宗瑞, 高麗史節要, 東國文化史, 1960.
- 洪鳳漢外, 增補文獻備考, 東國文化史, 1957.
- 李定求 編著, 四千年文獻通考, 東明社, 大正15年.
-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史, 1973.
- 金東旭, 李朝前期服飾研究, 韓國研究叢書 15輯, 韓國研究員, 1963.
- 高光林, 韓國의 冠服, 和成社, 1990.
- 柳喜卿, 韓國 服飾史 研究, 梨花女大 出版部, 1986.
- 石宙善, 韓國 服飾史, 寶善齋, 1971.
- 事物紀原
- 李正玉, 冠禮服飾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1990.

- 李東洲, 高麗佛畫, 中央日報社, 1981.
- 張忠植, 高麗華嚴版畫의 世界, 亞細亞文化社, 1982.
- 李基白, 高麗 光宗 研究, 一潮閣, 1981.
- 文明大, 韓國의 佛畫, 說話堂 美術選書 6, 1990.
- 曹五順, 團領에 관한 研究, 中央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1986.
- 宋史, 景仁文化史, 1977.
- 王博, 唐會要,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6.
- 敦煌莫高窟 五, 文物出版社, 1987.
- 月刊 物文故宮 28, 國立故宮博物院.
- 上海市戲曲學校中國服裝史研究組, 中國服飾五千年, 商務印書館 香港分館, 1984.
- 中國壁畫全集, 敦煌 9 五代 宋, 中國壁畫全集 編纂委員會編, 1990.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1983.
- 原田淑人, 西或發見의 繪畫로 본 之仁子 服飾의 研究, 東洋文庫刊行 大正 十四年.
- 杉本正年, 東洋服裝論攷(古代編), 文化出版局, 1979.
- 杉本正年, 東洋服裝論攷(中世編), 文化出版局, 1984.
- 佐伯富, 東洋의 歷史(6), 宋의 新文化, 人物往來社, 昭和 42年.

ABSTRACT

The Comparative Study of Koanbok between the Koryo and Sung Dynasty

This thesis is mainly on the study of Gongbok (official dress) and Sangbok (usual dress) in the system of official outfit of the Koryo dynasty, which has not yet fully studied in the history of Korean dress and its ornaments.

Even in this difficult circumstances, the system of dress and its ornaments can be understood with the help of remaining Buddhi-

st literature. Thus the system of official outfit in the Koryo dynasty has been studied here with some documentary records such as Koryo-dokyung (The Picture Book of The Koryo Dynasty), Koryosa-yeobokji (The History of Dress And Its Ornaments in The Koryo Dynasty) and so on. As the Koryo dynasty developed her international relationships continuously with her neighbouring nation which were geographically closely connected, so the systems of official outfit in the Chinese dynasty of Sung had to be studied and compared with.

In the Koryo dynasty, the same four colour system of purple, red, deep red and green had survived until the year of 1123 from the year of 960, not using the blue colour from the four colour system of purple, Chinese red, green and blue of the Sung dynasty. The four colour system of purple, deep red, green and black under the reign of the King Euijong was exactly the same as that of official outfit of the Sung dynasty in the year of 1078, the first year of Wonpung's reign, and wearing Eodae (fish sack) is a sure sign of influence of the system of Sung dynasty. Even though Koryo was invaded by Yuan during the period of the reign of the King Chungyul, the four colour system was not changed of purple, deep red, green and black along with the same Dae-sudanryung (long sleeve and round collar).

In 1387, the thirteenth year of the King Woo of the Koryo dynasty, Pumdae (rank belt) was used for different official ranks, and the system of wearing Samo (fine gauze hat) and Danyung (round collar) was established for the official outfit of every government officers.